

박지원 의원

전남 고용·산업위기지역 국비 179억 확보

목포종합수산물시장 일대 50억 투입...수산물시장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 될 것

민주평화당 박지원(전남 목포) 의원은 8일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정부 목적예비비 집행사업에 전남지역 13건 179억원(목포시 4건 121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용·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

고자 추석 전에 목적예비비를 추가 투입하기로 한 데 이어 전남 오후 김동연 부총리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 사실상 확정됐다.

박 의원은 "목포시 사업 중 특히 남도음식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목포종합수산물시장 일대에 내년까지 총사업

비 50억원(전액국비)을 투입해 상가시설 20개소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산물시장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역량 제고사업(10억), 미래이동수단 사용자경험증진 기반구축사업(5억), 기업 맞춤형연계 전문인력 양성사업(3억)

등이 지역의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 국회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경 서부정비장 건설(2천578억), 수산물종합수출단지 조성(942억) 등 현안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광태 기자 ingopress@



지난 1월 당시 원도 보길도와 노화도 식수원인 부용저수지 모습. /연합뉴스

전남친환경디자인상 대상에 '6시간의 기억'

작품성·사업실현 가능성 돋보여
금상 '마주보다' 등 10개 우수작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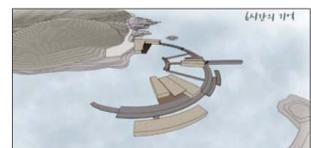
'전남을 Re-Design하다!'라는 주제로 개최한 제3회 전남도 친환경디자인상 작품 공모전에서 '6시간의 기억'이 대상작으로 뽑히는 등 10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참여를 늘리고 작품성과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참가 자격도 제한을 두지 않고 공모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예년보다 분야가 다양해지고 수준 높은 작품들이 다수 응모하면서 '친환경디자인상'의 제정 취지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1차 서류와 패널 심사, 2차로 프레젠테이션과 모형 심사를 통해 대상을 받은 '6시간의 기억'(장은정 - 전주대학교)은 원도 보길도 여항리 일대의 지형과 조수간만의 자연현상을 이용해 휴식과 체험공간을 구성했다. 작품성과 사업 실현 가능성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금상을 받은 '마주보다'(김재희·최지수 - 광주여자대학교)는 서남해안 다도해의 아름다운 경관 등 지역 특색을 살린 공간적 용도 선정이 돋보였다는 평이다.

김명원 전라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



친환경디자인상 아이디어 분야 대상 수상작

"친환경 자원이 풍부한 전남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작품이 많이 출품돼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며 "특히 대상 작품처럼 실현 가능성이 높고 완성도가 뛰어난 아이디어는 사업화 방안을 마련해 관광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상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디자인 사업 모델 발굴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다. 이번 수상작은 오는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순천에서 열리는 제5회 2018 전남도 친환경디자인전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기간 중 시상식도 진행한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전남도 상수도 확충 국비 1천517억 확보

식수원 개발과 노후 상수도 정비 등에 쓰여...섬 식수난 해소 기대

전남도는 내년 상수도 확충사업에 올해보다 674억원 늘어난 1천51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예산은 식수원 개발과 노후 상수도 정비 등에 쓰이는데 특히 도서 지역 식수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했다.

세부 사업별로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 예산이 607억원에서 663억원,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97억원에서 502억원,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이 139억원에서 352억원으로 늘었다.

상수도 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등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노후상수도 시설정비사업 추진지역을 기존 6개 군에서 11개로 확대한다.

유수율을 높여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하고 수돗물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서 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지난해 극심한 가뭄으로 제한급수가 이뤄진 원도 등 섬 지역에서 해수 담수화, 관정 개발, 해저 관로 설치 등 방식으로 추진된다. 송경일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서 지역 식수난 해결을 위해 국고 지원을 건의해왔다"며 "식수난을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도민 물 복지를 지속해서 향상하겠다"고 말했다. /조광태 기자 ingopress@

담양 죽녹원 대나무숲 '국가산림문화자산' 지정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적 생태관광 자산인 담양 죽녹원 대숲이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죽녹원 대숲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존재하던 숲이다. 대바구니, 광주리 등 생활공예 자원으로 활용이 높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현재는 방문객에게 자연학습,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특히 대나무라는 단일 수목을 활용한 숲속제인 전국대나무 축제 열리는 장소로 활용되는 등 보존 가치가 크다.

국가산림문화자산은 산림생태·경관·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유·무형의 자산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총 41건이 지정·보존되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완도수목원 가시나무가마터, 담양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해남 관두산 풍혈 및 샘 등 12건이 지정됐다. 이는 전국의 29% 규모다.

전라남도는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 지정된 지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을 마련



힐링되는 대나무 숲 '죽녹원'

린해 도민의 문화향유는 물론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형호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전남 산림에는 유·무형의 산림문화자산이 산재해있다"며 "이들 자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훼손을 방지해 후대에 더욱 가치있는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강종연 기자 jilbest1@

어장관측정보 시스템 구축해 양식장 관리 효율화

2022년까지 200개소 설치해 실시간 어장정보 제공

전라남도해양수산과학원(원장 최연수)은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 수산물 피해를 예방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 200개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는 어장 관측장비 설치 정점 선정, 관리시스템 개발, 어장 관측장비를 시범 설치하고 오는 2022년까지 5년 동안 40억원을 들여 순차적으로 전남 해면양식장에 어장관측정점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국 해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해양환경 어장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남지역에는 9개만 설치되었으며, 완도군 등 자체

설치된 것까지 모두 합하면 26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전남 양식업 종합대책'을 지난 2016년 2월 수립해 10대 대응과제에 이 시스템 도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고수온 피해해역에 대해 우심지역으로 관리,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어장관측정보 관리시스템은 해역별로 최적화된 어장 관측장비다.

/조광태 기자 ingopress@

보건복지부 지정 해남종합병원

1·2·3 내과, 1·2·3 정형외과, 1·2 산부인과, 1·2 영상의학과, 1·2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심의필 제80408-중-7401

분만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중!

'출산부터 산후조리까지 한번에~'

- 입원실·분만실·신생아실·회복실 등 최신시설로 신축
- 365일 24시간 분만가능
- 초음파, 신생아 모니터 등 46종의 최신장비
- 분만산부인과(530-0279), 산후조리원(530-8650)

Since 1981 종합병원·가정의 수련병원

해남종합병원

대표 전화 530-0114, 8275
응급실 530-0119, 0129
장례식장 533-4444, 010-4345-4104